

보도일시	2017. 2. 13.(월) 배포시		배포일시	2017. 2. 13.(월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주환욱 (044-215-2730)	담당자	이근우 사무관 (044-215-2731)	
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(044-215-2750)		김재운 사무관 (044-215-2758)	
	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민경설 (044-215-4710)		정규삼 사무관 (044-215-4712)	
	기획재정부 국제과장 이주섭 (044-215-5130)		김교중 사무관 (044-215-5135)	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황수성 (044-203-4210)		최태준 사무관(044-203-4212)	
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강영수 (02-2100-2850)		김종식 사무관 (02-2100-2854)	
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 권민수 (02-759-5967)	전재환 과장 (02-759-5968)			
금융감독원 외환업무팀장 민재기 (02-3145-7928)	이정운 조사역 (02-3145-7929)			
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김동완 (02-3705-6217)	안남기 팀장 (02-3705-6232)			

## 제목: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「관계기관 합동 점검반」 회의 개최

- 정부는 2월 13일(월)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「관계기관 합동 점검반」 회의를 개최하여,

\* 참석기관: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국제금융센터

- 북한 미사일 발사(2.12) 관련 해외시각과 금융시장·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,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

- 북한은 2.12일 오전 7시 55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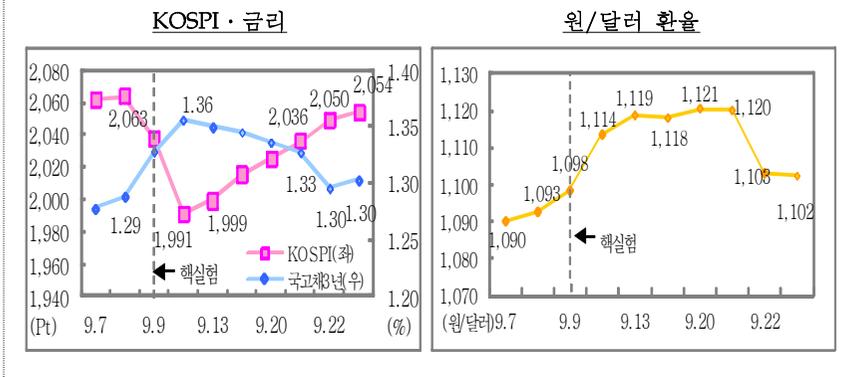
-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, 금번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, 무수단급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

- 금번 미사일 발사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실시된 바,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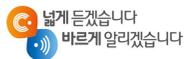
- 과거 핵실험,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·제한적이었음

< 참고: 북한 5차 핵실험('16.9.9) 당시 금융시장 반응 >

- (주가) 핵실험 이후 주가는 2거래일간 72pt 하락하였으나,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6거래일 이후 이전 수준 회복
- (금리) 2거래일간 7bp상승하였으나,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
- (환율) 5거래일간 28원 상승하였으나, 이후 하락세로 전환



- 그러나, 美 新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·경제질서의 변화 가능성,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  - 특히, 금번 미사일 발사는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,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이에,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
  - 「관계기관 합동 점검반(반장: 기재부 차관보)」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,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
  - 「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」, 「경제현안점검회의」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·실물경제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,
    -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 (Contingency Plan)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
  - 아울러, 외국인 투자자, 외신,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와 對韓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